

농지임대부터 연금까지…농지은행 디지털화 ‘박차’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업무 자동화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절차 간소화
전자계약·원스톱 등록 서비스 운영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임대와 연금 관련 문의·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임대수탁 업무 자동화와 농지연금 실시간 대기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절차도 개선해 고객이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절차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업무 자동화 ▲농지연금 실시간 대기 정보 제공 등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를 개선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본인 인증을 거쳐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사는 고객이 각종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이를 도입했다. 서비스 도입에 따라 고객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지사를 방문해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한 번에 제출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존 농지은행 계약 고객의 41.6%가 6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인증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증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 대두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사를 방문한 고객은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확인 후 태블릿 서명만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된 정보를 임대수탁 업무 자동화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해 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신청 정보를 자동 생성하고 사업 대상 적격 여부도 자동 판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처리시간이 기존 9분30초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어 고객 대기 시간은 짧아지고 담당자 업무 부담도 덜어졌다.

올해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순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농지연금 실시간 대기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농지연금 신청자가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 지사 등을 입력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자신의 가입 대기 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디지털 업무체계를 개선해 농지은행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여오고 있다.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농지대장·경영체등록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통해 관계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사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은행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객 불편과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업무체계와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농지은행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하세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GICON, ‘광주 사운드파크 X 피크뮤직 페스티벌’ 연다

내일부터 이틀간 광주음악창작소 등서
밴드 넬·지역 뮤지션 등 다채로운 무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7일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음악창작소 피크뮤직홀과 사직공원 일원에서 ‘2026 광주 사운드파크 X 피크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밴드 넬(NELL)을 비롯한 다양한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 가을의 정취와 어우러진 음악을 선사한다.

올해 10회를 맞은 전남광주 대표 음악축제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과 광주음악창작소의 ‘피크뮤직페스티벌’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온라인 홍보와 관객 안전을 위해 도입한 우선 입장 예매권 500

매가 1분 만에 매진되며 개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날인 9일에는 광주음악창작소 피크뮤직홀에서 지역 간 음악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광주음악창작소가 육성한 더티라곤과 테이퍼드를 비롯해 부산의 세이수미, 경남의 잔물결, 전북의 커런트우드 등 타 지역 음악창작소 교류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를 선보인다.

10일에는 사직공원에서 헤드라이너 넬을 중심으로 극동아시아타이거즈, 신인류, 더픽스, 세기말이 공연을 펼친다. 여기에 무드리스트, 투파이브, 예담 등 광주음악창작소가 육성한 뮤지션들도 합류해 시민들과 함께 가을날의 음악 축제를 완성한다.

공연과 함께 사직동·양림동 골목상권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인근 상가를 탐방하고 굿즈를 받는 ‘보물지도 찾기’ 이벤트가 진행되며, GICON과 호남대학교 엔지니어링단이 함께하는 ‘2026 대학·지역사회 커뮤니티시티 운영’의 일환으로 인근 상점 이용 영수증을 인증하면 페스티벌 굿즈를 증정한다.

행사장에서는 푸드트럭과 플라마켓,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입주기업 홍보 부스, 관객 참여형 부스도 운영된다. 시민들은 공연 관람과 함께 먹거리와 체험을 즐기며 축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GICON 관계자는 “통기타 거리와 음악의 추억이 서린 사직공원에서 가을밤의 낭만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지역 뮤지션과 전문 뮤지션이 함께 무대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LH,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대폭 강화

기존 3천만원 포상금 상한 폐지

과징금 부과액 최대 30% 지급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7일 LH에 따르면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입증 자료를 요구했던 접수 기준을 완화해 구체적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

포상금은 기존 3천만원이었던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단축해 최대 50만원을 먼

저 지급하는 ‘1차 포상금’을 신설했다.

LH가 자체 조사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관찰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과징금 예상액의 10%(최대5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포상금 지급이 늦어졌던 기존 제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신고 절차도 개선해 건설 현장 등에 안내된 신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제보 접수 화면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LH는 개선된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 LH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희망퇴직 시행…“미지급 급여·퇴직금 지급”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홈플러스는 7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희망퇴직 관련 공문을 보냈다. 홈플러스 본사와 점포 재직 인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미지급 급여, 추석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퇴직일은 이날 말일로 회사는 11월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위로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지난 달 15일 각 노조를 만나 회사 경영 상황을 알리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언급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 부문 인수 희망자 역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태호 기자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CMYK